

유럽파 복귀전... 이강인 77분·황희찬 1도움+PK유도

이강인의 마요르카, 1-0 레알 유니온 꺾고 국왕컵 3라운드 진출
울버햄프턴, 황희찬 맹활약 질릴엄에 승리 카라바오컵 8강 올라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황소' 황희찬(울버햄프턴)과 '골든보이' 이강인(마요르카)이 성공적으로 복귀 첫 경기를 치렀다. 황희찬은 소속팀 복귀 첫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추가골 도움까지 올렸다. 이강인도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77분을 뛰며 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황희찬의 소속팀 울버햄프턴은 21일(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 질릴엄(4부 리그)에 2-0으로 완승했다. 0-0으로 팽팽하던 후반 16분에 교체 투입된 황희찬은 2골 모두에 관여하며 울버햄프턴의 승리를 주도했다. 황희찬이 후반 31분 코너킥 상황 골지역 정면에서 슈팅을 시도하자 상대 수비수 체에 알렉산더가 그를 잡아챘다. 심판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키커로 나선 스트라이커 라울 히메네스가 후반 32분 득점에 성공했다. 이후에도 중립무진 그라운드를 누비던 황희찬은 후반 46분 왼쪽을 돌파하다가 컷백을 건네 라얀 아이트누리의 쐐기골을 도왔다. 도움 1개를 추가한 황희찬은 올 시즌 공식전 공격포인트를 도움 2개로 늘렸다. 앞서 기록한 1개의 도움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개막전에서 올렸는데, 이후 주전 경쟁에서 밀렸던 황희찬은 무려 4달여 만에 두 번째 공격포인트를 신고했다. /연합뉴스

황희찬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전에서 한국을 16강으로 이끄는 2-1 역전 결승골을 책임졌다. 한껏 자신감을 끌어올린 황희찬이 소속팀에서 기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황희찬에게 교체 선수 중 가장 높은 7.1점의 평점을 부여했다. 선발 출전한 선수들까지 포함해도 팀에서 4번째로 높은 평점이다. 이강인이 77분을 소화한 스페인 프로축구 마요르카가 3부 리그의 레알 유니온을 제압하고 코파 델 레이(국왕컵) 3라운드(32강)에 진출했다. 마요르카는 21일(한국시간) 스페인 이룬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국왕컵 2라운드에서 레알 유니온에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마요르카는 내달 초 경기가 치러질 대회 32강에 올랐다. 상대는 추첨으로 정해진다.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후반 32분까지 뛰었으며, 공격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이날 경기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던 이강인이 소속팀으로 복귀하고서 치른 첫 경기였다. 이강인은 올 시즌 라리가에서만 2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마요르카는 전반 20분 다니 로드리게스의 골로 승리했다. 로드리게스는 상대 진영에서 수비 실수를 틈타 공을 빼앗은 뒤 오른쪽 슈팅으로 득점했다. /연합뉴스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황희찬이 21일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16강 질릴엄(4부리그)전에서 골 찬스를 놓치고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 박찬호, 팬들과 함께 나눔 실천



KIA 박찬호(가운데)가 지난 20일 광주영아일시보호소를 찾아 팬들과 마련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
기부금 600만원 전달
“내년엔 더 크게 나누겠다”

따뜻한 나눔으로 2022년을 마무리한 KIA 타이거즈 박찬호가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린다. KIA 박찬호는 지난 9일 광주 동구 소태동에 위치한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이하 보호소)를 방문했다. KIA 대표 선수로 보호소를 찾은 그는 올 시즌 나성범, 전상현, 정해영, 김도영, 최형우, 장현식 등이 수상한 밝은안과21병원 영간MVP 상금 중 일부를 적립해 마련한 '사랑의 기금'을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 20일 박찬호가 다시 보호소를 찾았다. 이번에는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팬 카페 회원들과 함께 결연을 해 600만원의 기부금을 보호소에 전달했다. 박찬호의 매 경기 성적에 따라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적립했고, 여기에 박찬호와 구단 후원업체인 키스코의 김원범 대표도 정성을 보태면서 마련된 금액이다. 박찬호는 “팬들이 만들어주는 자리다”며 “팬들과 함께 하는 팬카페인데, 어떤 의미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기부를 생각해서 시작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였다. 자율 기부로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경기를 더 잘한 날에 많이 모였을 것이다”고 웃었다. 올해 ‘아빠’가 된 만큼 더 의미 있는 기부가 됐다. 박찬호는 “기부에 인식했고,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마음이 다르다.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사랑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기부를 하게 됐고, 앞으로도 기부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아이들을 위해 하게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야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게 된 박찬호는 내년 시즌 더 큰 나눔을 다짐하고 있다. 그만큼 새 시즌 준비에 여념이 없다. ‘힘’을 키워 장타를 늘리는 게 박찬호는 목표다. 박찬호는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타를 키워야 한다. 홈런 치는 유격수는 매력 있다. 그렇다고 홈런을 노린다는 것은 아니다. 내 스윙이나 타격 매커니즘에 변화를 주거나 풀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더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며 “내 파워를 늘리고, 더 강하게 정타를 내는데 신경쓰겠다”고 이야기했다. 장타력이라는 목표를 위해 일단 ‘뭉툰들기’에 신경 쓰고 있다. 박찬호는 올 시즌에도 몸을 기우면서 그라운드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박찬호는 “파워, 내 체중을 더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매년 체중을 올리고 있다. 내년에는 80kg로 시작하게 될 것 같다. 전역했을 때가 78kg였고, 시즌 때가 75kg였다. 올해는 76-77kg에서 시작했다”며 “한 번에 늘리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늘리는 만큼 무리는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을 돌아보면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다. 42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KIA 유일의 ‘타이를 홀더’가 됐고, FA 선수를 제외하고 팀에서 연봉고과 1위를 찍었다. 무엇보다 간절하게 바라던 포스트시즌 경험도 했다. 박찬호는 “올해는 성공적인 것 같다. 한 경기였지만 원하는 포스트 시즌도 해봤다. 3안타를 치기는 했는데 운이 좋았다(웃음). 홈에 들어올 때 사실 조재용 주루 코치님이 막았는데 들어왔다. 그때 안타 하나가 더 나와서 승부를 뒤집어줬는데 아쉽다”며 “확실히 재미있었다. 분위기가 달랐다. 경기장에 도착해 버스 내리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재미있었다. 포스트 시즌에서 처음 이기면 좋을 것 같다. 포스트 시즌을 더 경험하고 싶다. 내년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 포스트 시즌에서도 더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16강 도운 우루과이 핸드볼 파울은 오심?

포르투갈-우루과이전
FIFA 심판 강사 인정 파장

2022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우루과이 경기에서 포르투갈의 2번째 골로 이어진 페널티킥 판정이 ‘오심’이라고 국제축구연맹(FIFA) 심판 강사가 인정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대한축구협회(KFA) 심판 컨퍼런스에서는 수키딘 빈 모드 살레 FIFA 심판 강사 겸 축구협회 수석 심판 강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타난 판정 경향에 관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서 수키딘 강사는 비디오판독(VAR)이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제시했는데, 그중 가장 먼저 든 것이 조별리그 H조 2차전 포르투갈-우루과이 경기 막판에 나온 우루과이 호세 히메네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핸드볼 파울 장면이었다. 포르투갈 브루누 페르난즈(맨체스터 유나이

티드)를 막던 히메네스는 페널티지역 안에서 넘어지면서 왼손으로 땅을 짚으려 했는데, 이때 페르난즈가 드리블하던 공이 히메네스의 손에 맞았다. 심판은 VAR 심판과 교신한 뒤 히메네스의 핸드볼 파울을 선언했다. 페르난즈가 후반 48분 직접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포르투갈은 2-0 승리를 완성했다. 수키딘 강사는 이 판정이 ‘오심’이라고 봤다. 수키딘 강사에 따르면 당시 VAR 심판은 주심에게 ‘넘어지던 히메네스의 팔이 아직 땅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 핸드볼이 맞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주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수키딘 강사는 “손이 완전히 땅에 닿기 전이라도 지지하기 위해 손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공이 맞으면 핸드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심(규정) 해석을 잘 못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 장면에서 심판들은 더 정확하게 판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오심은 결과적으로 우루과이를 조별리그에서 탈락시키고, 한국을 16강에 올려놨다. /연합뉴스

유럽서 쫓겨난 호날두, 사우디 알 나스르와 계약하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포르투갈)가 올해 안에 사우디아라비아 클럽팀인 알 나스르와 계약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21일 “호날두가 현재 아랍에미리트(UAE)에 있으며 곧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올해 안에 계약서에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까지”라고 전망했다. 조건은 2년 반 계약에 연봉 2억 유로(약 273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11월까지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호날두는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개막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을 해지해 현재 소속 팀이 없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베테랑 미드필더 이후권과 재계약

전남드래곤즈가 베테랑 미드필더 이후권(사진)과 재계약을 맺었다. 광운대 출신인 이후권은 부천, 상주상무, 성남, 포항 등에서 활약한 10년 차 베테랑으로 K리그 통산 206경기에서 나와 10득점 1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후권은 지난 2019시즌 여름 전남 유니폼을 입고 4시즌을 뛰었다. 전남 소속으로 90경기에서 나온 그는 6득점 4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 시즌 전남에서 100경기 출전을 노린다. 이후권이 전남 소속으로 100경기 출전을 이루면 ‘35번째’ 세 자릿수 경기 출전 선수가 된다.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베테랑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이후권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후배선수들을 이끌며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다. 왕성한 활동량



을 바탕으로 상대 길목을 차단하는데 탁월한 미드필더 이후권은 측면 수비수로도 활동할 수 있으며 득점력도 갖추고 있다. 이후권은 “올 시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이다”며 “전남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감사한 마음이 크다. 2023시즌 잘 준비해서 팬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전남이 목표하고 있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